

현대시에 수용된 가톨릭시즘*

-한국 여성 시인들을 중심으로-

김 효 중**

< 목 차 >

- I. 머리말
- II. 한국시와 가톨릭시즘
- III. 여성시인들의 시에 수용된 가톨릭시즘
- IV. 맺음말

<Abstract>

Catholicism reflected in the Korean modern poetry

- with regard to the works by women poets

Kim, Hyo-Joong

As was discussed above, the Korean women poets display the ecstatic moments of emotional experiences that can be reached through the personal contact with profound Catholic belief. This ecstatic moments of emotional experiences that can be reached through the personal contact with profound Catholic belief. This through the personal contact with profound Catholic belief. This again introduces readers to the second-hand experience of spiritual purification. Their works of art are stories of spiritual human beings

* 이 논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연구비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with full of hearts both tranquil and passionate, which come from steadfast attitude in defense of human truth and spiritual transparency. This explains the sympathy they gain from the readers of different time and space, and even of non-Catholic beliefs.

Religious life constitu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human experiences and the practicing religious teachings in church in particular prompts its believers to conduct self-examination. Obviously the self-reflection leaves marks on the works of art as is the case with our female poets in question who harmonize Catholic belief with their poems thus fulfilling their duty as Catholic poet.

What is more significant is that their poems are appreciated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y strive for “the realization as aesthetic form of existence of spirituality and eternity” Which is an ultimate destination of arts in the Catholic tradition. Therefore these works of art can be said to have a ‘voice above readers’ among the three different kinds of voices in poetry Oh Se-young presented. The poems that have a ‘voice above readers’ concern problems that transcend routines of daily life searching for reasons, directions, and absolute faith of life. With the aspect of intrinsic and ideological nature, these are metaphysical. The common drawbacks of religion-oriented poems that they usually end up with extreme abstractions seem to be overcome in their works by unique expressive skills.

The Catholic poems by these women writers acquire a solid ground in the Korean poetry with their profundity and frankness in the form of prayers. Their Catholicism is not only a source of personal salvation but also an offering towards the development of of the Korean women poetry.

I. 머리말

문학을 종교와의 연관 아래 논의하는 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행해져 온 것으로서 비교문학의 중요한 한 영역에 속한다. 신앙은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보며 자아를 절대시하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자아의 한계를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낳은 고도의 문화나 지식문명이 달성한 고수준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은 현대인들은 종교에 관해서는 물론 특히 문학과와의 관련 아래 종교를 논하는 일에는 비교적 덜 적극적이다. 그런데, 문학은 종교 속에서 많은 것을 섭취하여 풍요한 작품세계를 형성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문화인이라도 종교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¹⁾고 한 엘리엇 T. S. Eliot의 말은 새겨들 만하며, 도모쥬가 “第三의 세계에서 인간을 포착하여 묘사하는 데에 그리스도교 작가의 유니크한 관점이 있다. 그리스도교 작가가 타락한 인간이나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묘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작중인물의 구원의 빛이 어디서 오는가-말하자면 불가불 第三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를 알 수 있다”²⁾고 한 주장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생 경험을 다양하게 하여 폭넓은 삶을 엮어 가는 데 분명히 자양분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중세 때 종교가 권위를 가지던 시대에는 윤리, 질서, 인생관 등이 하나의 종교에 의하여 통일되고 종교에 대하여 전혀 회의적이지 않았다. 과학기술이 낳은 문화나 지식 문명이 달성한 고급 수준의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현대인들은 중세기는 이미 옛날이고 너무 유치하고 단순한 시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교에 집착하여 이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교양이 없고 우매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신

1) T. S. Eliot, *Notes towards the definition of culture*, Faber & Faber, London, 1962, p. 15.

2) 다께다 도모쥬, 이석현 역, 『문학과 인생』, 성바오르출판사, 1980, p. 130.

앙이란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며 자아를 절대시하는 현대인이 자아의 한계를 인식해야 함을 시사한다.

작가에 따라서는 문학의 진정한 목표를 인생 혹은 인간의 진실을 새기고 그 뒤에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쳐지는 것에 대한 희망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데 둔다. 한 작가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작중인물의 구원문제를 취급하는 데서 드러난다.

종교는 역사와 사회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인간학과 밀접한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으며 문학을 논의하면서 종교를 도외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본고의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현대시사에서 천주교가 이입되어 문학사상에 끼친 영향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창가, 가사를 비롯한 개화기 시가는 물론 노천명, 정지용을 비롯한 다수의 시인들의 시에 투영된 가톨릭적 경험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은 현실을 풀어야 할 수수께끼, 새롭게 구성해야 할 혼돈, 의미를 부여해야 할 미지의 것으로 보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은 세계와 인간의 창조인데 적어도 우주의 신비와 더불어 인간 조건의 비극성이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될 창조이며 때로는 세계의 부조리와 관념의 절망을 넘어서는 유일한 인간적 기적의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창조적 세계 안에 철학을 맞아들인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여성 시인들은 각기 자신의 시세계를 독특하게 창조하여 한국현대시사상 그 위상을 당당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시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가톨릭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세계를 확보한 것도 매우 중시해야 할 일인데, 아직까지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성과³⁾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정신적인 면

3) 필자가 그 동안 가톨릭시즘과 시와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개별 시인을 다룬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시작품은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시와 신앙」-김남조의 경우-, 『여성문제연구』 15집,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

의 황폐화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시 세계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의 버팀목이 될 훌륭한 시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치를 헤아려 음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한국가톨릭시선』(한국가톨릭시선 편집위원회, 들숨날숨, 2000)을 기초자료로 택하여 한국의 여류 시인 가운데 김남조, 이해인, 강은교, 신달자의 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작품 속에 수용된 가톨릭 사상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시인 자신의 깊은 영적 내면을 더듬어가는 과정에서 신의 은총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감격을 시로써 표출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유안진, 김후란, 홍윤숙의 시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함께 거론되어야 하나,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다른 자리에서 논하기로 한다.

II. 한국시와 가톨릭시즘

1. 가톨릭 시의 개념

가톨릭 시의 상위개념인 가톨릭 문화는 보편적으로 가톨릭적 주제를 언어표현으로 담아낸 예술을 일컫는 바, 아래의 인용문은 이에 대하여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연구소, 1987), 「이해인론」(『여성문예연구』 16집,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예연구소, 1988), 「한국현대시와 가톨릭시즘」-정지용을 중심으로-(『가톨릭교육연구』 8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98), 「노천명의 시에 나타난 가톨릭시즘」(『어문학』 68, 한국어문학회, 1999), 「구상 시에 나타난 가톨릭시즘」(『국어국문학』 124, 국어국문학회, 1999).

“무엇을 어떻게”가 모든 예술 구성의 기본조건이라면 사상적 감동을 줄 수 있는 가톨릭적 주제 내용에 문학적 이미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언어표현으로 이루어진 예술을 우리는 가톨릭 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⁴⁾

한편, 최민순 신부는 그의 “문학론”⁵⁾에서 ‘가톨릭 문학과 그 작가(1)(2)’를 논하는 가운데, 가톨릭 예술은 인류 구제의 기관인 가톨릭 이념과 원칙에 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임무는 단지 소극적으로 진리와 최고선에 배치되지 않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신앙과 적극적 조화를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서 한 작품이 가톨릭적인 것이 되려면, (1) 작가가 가톨릭 신앙을 선언하든지, (2) 작품이 가톨릭적 환경을 취재하든지, (3) 작품의 세계관 문제에 대한 우주의 해답이 가톨릭 신앙과 일치하듯이 해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가톨릭 문학이 자칫 종교적 교훈으로 착각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영원초월적인 실재 내용을 가시적 예술형식으로 표현하는 데에 비로소 가톨릭 문학의 본질이 있다고 한 점이다. 그는 문학이 무엇인지 가톨릭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이 땅에 있어 가톨릭 시인 혹은 가톨릭 소설가라 자처하는 사례는 예술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모독임을 경고하고 있다.

가톨릭 문학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본고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삼고자 한다. 즉 가톨릭 문학은 문학작품으로서 예술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가톨릭적 주제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주제를 어떻게 표현해냈느냐 하는 문학 고유의 특성을 중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가톨릭문학이나 기독교문학이나 성서를 근간으로 하면서 하느님의 구원이라는 대전제 아래 작품을 창작한다는 측면에서 양자는 크

4) 이인복, 『한국문학과 가톨릭시즘』, 우진출판사, 1990, p. 12.

5) 최민순, 『영원에의 길』, 가톨릭출판사, 1997, pp. 263~269.

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⁶⁾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쓰는 시인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는 것 역시 그 시인의 표현기법이나 개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뿐이라는 점이다.

2. 한국시의 가톨릭시즘 수용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파된 것은 1788년 2월 이승훈(본명 베드로)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천주교 교리서, 성화, 십자가 등을 휴대하고 귀국한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느님의 복음이 宣布된 해로 본다.⁷⁾ 이 때는 조선조를 풍미하던 주자학이 사대부 계층의 관심에서 벗어나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이 일기 시작한 때이다. 그래서 이수광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천주실의』 등 서학 관련 서적을 접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지식에 눈뜨게 되었으니, 그 내용은 삼라만상의 주재자, 창조주, 영혼의 존재, 영생불멸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당시 지식인 집단이 가톨릭에 접근해 간 동기는 가톨릭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내적 요구에 따라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정한모가 “몰락한 사대부층의 진보적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실학자는 전반적인 하강 속에 해체되어 가는 조선 후기 봉건사회가 드러내는 모순을 지적하고 그 극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천주교에 접근”⁸⁾한 것으로

6) 다만 기독교문학과 가톨릭문학을 기독교문학으로 통칭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각각 구별하여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종교사적으로 구교(가톨릭교)와 신교(기독교)로 분리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고 교리상의 차이에서 다소 어휘나 용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모마리아의 존재나 묵주의 기도 등은 가톨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것이다. 그런데 본고는 이와 같은 교리상의 차이에 대한 종교적인 물음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한다.

7) 박도식, 『순교자들의 신앙』, 성바오르 출판사, 1981, p. 51.

8) 정한모, 「기독교 전교시대와 한국문학」, 『한국문학』, 1976, 2월호 참조.

지적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가톨릭교가 이입된 역사는 200여 년을 헤아리는데, 이입 당시 수많은 박해와 함께 민중 속에 스며든 가톨릭에 대한 당시의 반응은 다양하여 한편으로는 성서, 성가류의 번역 및 교리서의 출판, 성당을 중심으로 한 미사 등을 통해 수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톨릭문학 작품의 번역, 서구음악의 보급, 민족애의 고취, 자유 평등 사상에 의해 자각된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시대적 조류에 영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다.

한국의 현대문학 형성 과정에서 가톨릭이 끼친 정신적 영향은 물론 그 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어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천주당”, “하느님”, “에덴” 등의 어휘가 시 속에 선택되었다든가 성서에서 빌어 온 듯한 비유나 주문 등은 가톨릭시의 일면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본고에서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가톨릭시 형성의 바탕이 되는 “가톨릭 의식”⁹⁾이 시인의 의식에 정신의 형식으로 어떻게 착색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존연구¹⁰⁾가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기독교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지적했으나 작품에 깊이 천착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가해지지 않은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톨릭시’라고 명명할 수 있으려면 시 속에 가톨릭 의식이 투철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그 문학성이 고양되어 한국 시문학사의 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 이러한 시를 창작하려면 시인은 성서적 사실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야

9) 가톨릭 의식이란 가톨릭의 목표인 속죄, 구원, 부활, 재림 등의 실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며 하느님과 교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식은 시인의 내부에 심화되어 작품 속에 가톨릭 의식의 시정신이 드러나게 된다..

10) 예컨대, 조운제, 백철, 조연현 등이 기술한 문학사에서는 작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에 의해 이론이 도출되지 않고 단편적인 작품의 예를 통해 기독교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말로 체험의 종교로서 체질화되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가톨릭 신앙의 체험은 문학적 양식으로 표상되어야 하고 비로소 가톨릭 의식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시를 논할 때 종교시라는 특별한 구별은 하지 않으며 시인에게 종교가 있고 없고를 문제삼지 않는다. 시에서 중시하는 것은 감성 못지 않게 지성이다. 지성의 기능은 종교적 체험을 시적 체험으로 파악하여 일반화하는 데 있다. 즉 지성은 종교적 사상이나 감성의 결합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시라는 명목을 내걸고 관심 있게 그 시를 관찰하면 저마다 다른 시인의 표현수법, 시적 체험의 공통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 때 자칫하면 표현의 상투성에 전락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보통 시인은 종교적 사명감에서 신의 은총에 힘입어 충만하고 悅樂에 쌓여있는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설명하는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종교적 체험을 시적 체험으로 파악하여 일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을 일탈하고 리얼한 표현을 얻어낼 때 시의 순수성을 확보하게 된다.

Ⅲ. 여성시인들의 시에 수용된 가톨릭시즘

개화기에 기독교 의식을 표상한 작품의 예는 이광수, 주요한, 황석우 등의 작품이고 이어 1930년대에 접어들어 정지용의 시에서도 확인된다. 세례명을 프란시스코로 하는 정지용의 시적 특성은 대체로 모더니즘과 동양정신을 동시에 추구함과 아울러 ,가톨릭시즘을 지향하고 있는 점이다. 정지용의 뒤를 이어 여성시인 노천명의 시에서 가톨릭적 주제와 선명히 드러난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여성시인들은 노천명의 다음 세대 시인들로서 가톨릭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작품을 창작하여 문학성을 획득

득하고 있는 시인들이다.

1. 김남조의 경우 : 사랑과 평화의 세계

김남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톨릭적 체험이 깊이 투영된 상당수의 작품들을 창작한 시인으로서 필자의 연구¹¹⁾에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제목과 소재적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노래했고 시어와 문체적 측면에서는 경어법, 설의법, 기도문의 형식을 빌어 가톨릭적 의식을 표현하였다. 특히 빛, 고요, 텅빔(虛), 고독 등 종교적 상징을 즐겨 사용함으로써 가톨릭의 敎義를 유감없이 描破하면서 이를 문학적 경지로 승화시킨 점에서 평가된다.

일찍부터 그의 시는 “만들어 쓰는 시”가 아니라 “되어져 나오는 시”로서 작은 것에 대한 애착, 하찮은 것이 갖는 소중함의 인식,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허락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가톨릭 신앙에서 오는 것¹²⁾으로 인식되어 왔다. 시인은 이 세상 모든 것들마다 존재 의미,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이 존재가 다른 존재와 만나 그 의미를 획득해 갈 때 세상은 아름답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러한 세계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것은 시인의 달관된 삶의 태도와 깊은 신앙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깊고 높은 것
그 확신을 위하여

11) 줄고, 「시와 신앙」-김남조의 경우-, 『여성문제연구』 15집,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7, pp. 17-36 참조

12) 오세영, 「김남조의 신작특집」, 『한국현대시의 행방』 (종울림문학총서 5), 종로서적, 1988, pp. 189-190 참조.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위하여
고독한 의지와 사랑
준령의 등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품속에 안아 주는 자연을 위하여
죽은 후에도 영원히 안고 있는
대지를 위하여
땅의 남편인 하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태어날 아기들과
미래의 동식물을 위하여
이름 없는 거
잊혀진 거
미지의 것을 위하여
가급적 다수를 위하여

그리고 보니
모든 걸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 「아름다운 세상」전문-

총5연으로 된 위의 시는 사랑의 연대성이 구현된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갈망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가톨릭 이념을 상징하는 사랑을 주제로 하면서 내용과 형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절묘하게 표현하였다. “아름다운 세상”은 시의 주제어로서 여

러 번 반복됨으로써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시적 화자의 시선은 일차적으로 절대자인 신을 향한 후 사람, 자연, 대지, 하늘로 옮기고 있으며 마침내 태어날 아기, 이름 없는 것, 잊혀진 것, 미지의 것 등 이 세상의 모든 작고 약한 것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문학과 신앙의 구원사적 연대성을 詩作을 통하여 실천에 옮긴 예라고 할 수 있다.¹³⁾

제1연에서 신에 대한 시적 화자의 경건한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신, 인간의 모든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신, 至高至純의 사랑을 베푸는 신에 대한 경외심, 그것은 소중하다. 성서의 “아훼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잠언」 1 : 7), “아훼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잠언」 9 : 10)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이것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신에 대한 인간의 예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 세상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간절한 바람, 곧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기도¹⁴⁾가 시로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시이며 이러한 시인의 기도는 사람의 진실을 하늘에 바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름다운 세상을”로 문장을 매듭지은 것은 오히려 시적 묘미를 더해준다. 시인은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단 독자에게 유보하고 있는데, 문맥상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노래하고 염원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경건한 기

13) 김남조의 시집 『목숨』, 『나아드의 향유』, 『나무와 바람』, 『정념의 기』, 『풍림의 음악』, 『겨울 바다』, 『설일』, 『사랑 초서』, 『동행』, 『빛과 고요』 등을 총망라한 『김남조 시선집』에 수록된 400여 편의 시를 주제별로 크게 사랑, 생명, 신앙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주목된다.

14) 김남조가 생각하는 간절한 기도와 경건한 마음이 잘 드러난 시는 「상심수첩」인데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기도란/사람의 진실 하늘에 바침이요/저희의 진실 오늘은 어둠이니/이 어둠 바치나이다//은총은 하늘의 것을 사람에게 주심이니/하늘 나라 넘치는 것/오늘 혹시 어둠이시면/어둠 더욱 내려주소서.”

도를 끊임없이 바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제2연에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은 곧 기도하는 마음이다. 기도하는 마음의 방향은 옳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으며 “준령의 동반”이 수반된다. 제3연에서 제5연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사랑의 내용은 곧 김남조의 시세계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세계이다. 즉 아주 작은 미물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신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며 가치 있는 세계로서 굳건한 신앙에 바탕을 둔 진실이다.¹⁵⁾

결과적으로 시인은 물질문명의 과도한 발달과 산업화의 촉진, 대도시화의 추세로 인하여 자아와 세계, 인간과 자연이 연속되지 못하고 끊어져 있는 이 불연속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닌 문제를 사랑으로 풀고자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문학의 위기, 인간의 위기, 인간 정신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문학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 시인의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과할 수 없다.

「열린 세계를 위하여」¹⁶⁾에서도 위의 주제를 형상화한 시이다.

그 갈망 너무나 깊어
이름 부르기에는 아파라
사람 속의 심연
무량한 고요 거기에
소리없는 강물로 누워있는
그의 이름은 평화

...중략...

15) 윤호병이 김남조의 시세계를 생명, 사랑, 신앙으로 요약한 것은 김남조의 시 전반을 검토했을 때 설득력이 있다.(윤호병, 『문학의 파르마콘』, 국학자료원, 1998, p. 207 참조)

16) 김남조, 『바람세례』, 문학세계사, 1988, pp. 116-117.

열린 세계로 가라
함께 살고 충실히 사랑을
열린 세계를 이루어라
천금의 중심을 관통하여 울리는
그 말씀
화해와 평화

기도말 중의 더 기도말인
화해와 평화
어린이는 연필 글씨로
화해와 평화
- 「열린 세계를 위하여」 일부 -

이 시에서 시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화해와 평화이며, 1연 1행의 “갈망”은 바로 이러한 세계에 대한 갈망이다. 4연 1행의 “기도말 중의 기도말인/화해와 평화”는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세계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열린 세계로 통한다. 화해와 평화를 통한 열린 세계는 천주교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세계이기도 하다.

2. 강은교의 시 : 救援의 삶 추구

강은교의 시세계는 첫시집 『허무집』을 비롯한 초기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허무가 진하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의 허무는 사변적이며 선함을 통해 직관하거나 예감하는 허무이다. 그는 1968년 「순례자의 꿈」으로써 사상계 신인문학상으로 문단에 데뷔하였는데 시어의 선택이나 소재적 측면에서 당시의 문단분위기로는 매우 획기적이어서 종래의 여성시인들이 한정된 소재를 반복적으로 시화함으로써 갖게 된 한계를 극복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여성문학사의 한

획을 그었으며 1974년 초판을 발행한 이래 매년 재판을 낸 시선집 『풀잎』은 스테디셀러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희귀병으로 뇌수술을 받고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난 후에 나온 『예언자』의 「죽음」¹⁷⁾은 그의 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그가 겪어야 했던 죽음의 공포¹⁸⁾는 그의 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¹⁹⁾ 초기시에서 보이는 허무의 세계는 1983년 부산에서의 생활 이후 견히기 시작한다.

아래의 시는 초기시와는 사뭇 다른 시로서 성서적 인유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성서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종교시이다.

무엇인가가 창문을 푹푹 두드린다.
 놀라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본다.
 빗방울 하나가 서 있다가 쪼르르륵 떨어져 내린다.

우리는 언제나 두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창이든, 어둠이든

17) “진실로 죽음의 혼을 보고자 한다면 그대들의 가슴을 넓게 삶의 몸을 향하여 열라. 삶과 죽음은 한몸, 강과 바다가 한몸이듯이 희망과 욕망의 저 깊은 곳에서 그대들은 말없이 미지의 나래를 깨닫는다. 그리하여 눈 속에서도 꿈꾸는 씨앗들처럼 그대들의 가슴은 봄을 꿈꾼다. 꿈을 믿으라. 꿈 속에서라도 영원애의 문은 숨겨져 있으니.....” (『예언자』의 「죽음」의 일부)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시세계는 초기시와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18) 「저물 무렵」은 병고를 겪는 과정에서 쓴 시로서 시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선명히 드러나 있다.

19) 그의 산문 「죽음의 날개가 스쳐간 자」(1973)에서 보면 나에게도 사물의 또 한면이 중요해졌다. 살아있음이 지나는 기쁨과 슬픔, 그 양면성, 가장 허위롭던 머릿속의 진실성, 목숨의 불확실함, 가랑잎 같음, 부조리, 운명과 신생,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진실로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또 얼마나 모르겠는가” 라고 술회한 바 있다.

또는 별이든.

- 「빗방울 하나가 · 5」-

인유의 근거는 “보라, 내가 문 앞에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나눌 것”(요한 묵시록 3 : 20) 에서 확인된다. 시인은 새로운 삶을 얻고부터 더욱 깊은 신앙에 바탕을 둔 삶을 살아왔으며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음을 시 속에서 암시한다.(1연)

사람은 본래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이에서 구원의 신을 찾게 마련이다. 그것은 2연의 “우리는 언제나 두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라는 표현 속에서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에 호소하면서 신의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인용하는 「너무 짧은 사랑 이미지 · 2」는 단 2행으로 된 극히 짧은 시인데,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앞의 시와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다.

저물녘,

달려오는 어둠 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종소리

- 「너무 짧은 사랑 이미지 · 2 -종소리」 전문-

이 시에서 활용된 기법은 의인화수법으로서 그것은 “무릎을 꿇고 있는 종소리” 에서 확인된다. 이 시는 하루가 끝날 무렵 즉 저물녘에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 종소리는 비록 짧게 울려퍼지고 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자아성찰을 통하여 하루를 반성하고 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사랑의 종소리이다. 다시 말하면 시적 화자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구원의 삶이라 할 수 있다.

3. 이해인의 경우 : 가톨릭 신앙 안에서 추구하는 求道者의 삶

이해인은 수녀원의 깊은 담 안에서 시를 쓰며 수도하고 수도하면서 시를 쓰는 수도자 시인으로서 詩作과 修道를 겸해왔다. 『민들레영토』(1976), 『내혼에 불을 놓아』(1979),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1983), 『시간의 얼굴』등 수많은 시집들은 수십 판이 거듭되면서 독자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갔다. 그의 시는 대체로 종교적 체험을 바탕으로 겸허하고 투명하게 그의 心魂이 표백되어 나오는 특징을 지닌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 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 「선인장」 전문 -

위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을 선인장에 감정이입시켜 고통까지도 축복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忍苦의 세월을 겪어낸 결과 마침내 화려한 꽃 한 송이를 피워 물게 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시에서 쓰인 선인장 즉 식물이미지는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완벽한 존재로서 죽음을 거쳐 영원한 재생의 순환운동을 지니고 지상으로 되돌아오는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 식물이미지는 그의 다른 시²⁰⁾에서도 즐겨 활용되고 있는데 물, 달, 여성이미지 등의 원형이미지와 더불어 영원한 재생의 신화를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보여주는 신화적 원형이다.

이 시인은 수녀로서 성직을 수행하며 자신의 생활 자체가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敬畏心과 철저한 가톨릭적 신앙을 바탕으로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 시창작을 통하여 求道の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해인 수녀의 어법은 ‘그대, 당신, 너’ 등 2인칭 지향화법을 즐겨 씀으로써 대부분의 서정적 연시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감정표현의 개인 지향성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 쓰인 어미 “~니다”는 경건한 시적 분위기를 살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사물을 관찰하는 시인의 눈은 가톨릭적 신앙 안에서 열려 있으며 “사막에서도/나를/살게” (1연) 하는 것, “쓰디쓴 목마름도/필요한 양식으로” (2연) 되게 하는 것, “고통의 가시들로/축복하신” (3연) 것, “피묻은/인고의 세월” (4연)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가장 긴 가시 끝에/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피워물게” (5연)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됨을 시각적으로 보여

20) 예컨대, 그는 「보름달에게 1」에서 보름달을 신성하고 완벽한 영원의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주고 있다. 이것은 굳건한 신앙의 바탕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시인이 독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윤리적 덕목인데, 이것은 “예술이란 우리들 자신의 연장으로 불완전한 우리들 개체의 보완”²¹⁾이라고 본 뢰블린Döblin의 문학관에 맞닿아 있다. 뢰블린은 “인생과 인간에게 작용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문학작품”²²⁾이라고 언급할 만큼 문학을 인생과 결부시켜 보았다. 이해인의 시에서도 불변적 주제인 사랑은 인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여러 가지 이미지로 변용되어 나타난다.

한편, 그의 시에서 슬픔·그리움·인내·외로움·기다림·검허·정열 등 사랑의 심리적 요소들은 은유적 원리보다 환유적 원리에 의하여 식물로 환유되고 있고 환유적 원리²³⁾에 의하여 너무 상식적이고 평범한 변용에 머무르는 한계성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그의 시가 지닌 이상한 친화력으로 평가²⁴⁾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의 시에서 보이는 語調와 친밀한 화법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 독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대체로 그의 시가 지향하는 어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인칭 지향화법인데, 다만 표면적으로는 5언에서처럼 이인칭화법 ‘당신’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인칭 지향 화법은 주체와 객체의 거리가 가장 가까이 밀착되거나 또는 동일화된 어울림을 주는 형식인데, 이것이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와 어울려 이해인 신드롬을 낳았던 하나의 이유가 된다. 즉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21) A. Döblin, *Unser Dasein*, Walter Verlag, 1964, p. 241.

22) A. Döblin, 같은 책, p. 262.

23) 예컨대, 사르비아꽃=정열의 뜨거움, 안개꽃=검손, 달맞이꽃=기다림, 할미꽃=외로움, 등꽃=검허함, 아카시아꽃=젊은 날의 그리움 등은 상식적이고 평범한 변용에 속한다.

24) 김승희, 「등근 아니마의 일하는 사랑」, 『시간의 얼굴』(이해인 제4시집), 분도출판사, 1989, p. 172 참조.

무한히 비밀한 영혼의 울림을 준다. 그래서 具常²⁵⁾이 이해인의 시세계를 “검허하고 투명한 心魂의 독백”으로 보면서 미국의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시세계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설득력이 있으며 위의 시에서도 여지없이 그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시가 갖는 힘은 그의 시 속에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 즉 카리타스를 인간이 구현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아래에 인용하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에서도 그가 추구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적 삶의 모습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진솔하게 표백하고 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주님 제게도 당신이 먼저
 한 잔의 물을 청하시듯
 조용히 말을 건네 오시렵니까
 저는 죄인이기에
 용기가 부족함을 당신이 아시오니.....
 ...중략...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향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일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녀로서 성직을 수행하는 그의 삶 자체가

25) 구상, 「검허하고 투명한 심혼의 표백」,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분도출판사, 1987, p. 7.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고자 애쓰는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 (4연 3행)인 것이다. 그래서 이 시에는 “물 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간/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6연 1, 2행)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알고 구원을 받도록 하고 싶다는 의도가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4. 신달자의 경우 : 성모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존재 의의에 대한 깨달음

신달자는 『현대문학』지에 박목월 추천으로 등단하여 40여 년 이상 적극적인 시창작을 해오면서 대한민국문학상, 춘향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첫 시집 『봉헌문자』를 낸 이후 총 9권의 시집을 냈으며 이 중에서 골라 뽑은 시선집 『이제야 너희를 만났다』(2003)로써 2004년 3월 한국시인협회상을 받는 등 여성시인의 위상을 확고히 굳히고 있는 시인이다.

그가 성모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은 「성모의 집」이다. 이 시의 창작 배경을 보면, 시적 화자가 예페소와 터키 등 성지를 순례하고 나서 얻은 깊은 감동을 바탕으로 창작한 것이 확인된다.

이스탄불에서도 하루를 달려
예페소에 닿다. 그곳에서도 더 높은 언덕
아름다운 은혜의 땅에 오르면 거기
성모님의 집
오롯이 미소 띠며 서 있다.
떨렸지. 마음의 신발 벗어 들고 나중히
몸 숙여 들어간 피흘린 아들
더 높이신 곳으로 떠나신 후
이곳에 살다 떠나신 집
승천의 바람이 남아있는 집

떨렸지. 마음의 마음도 벗어들고서
 한 발 한 발 서서히 다가왔을 때
 아 따뜻한 향기.....
 보았어. 어머니 가장 인자하신 모습
 익숙해서 한결음에 안길 듯한 모습
 거짓말 모두 사라지고 나 그 순간 가장
 정직해져 어머니! 어머니!
 나는 죄인이오니 절 버리지 마소서
 에페소를 떠나 터키를 떠나
 마음의 신발도 마음의 마음도 주워들고
 떠나오니 이 나라까지 그 체온 은근히
 따라와 내 집에 그대로 계시니.

- 「성모님의 집」 전문 -

위의 시에서 “성모님의 집” (4행)을 한 행으로 독립시킨 것은 성스러운 장소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며 그러한 곳을 방문했다는 감격적인 순간이 “떨렸지” (6행 및 11행), “보았어” (14행)에 드러나 있다.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서는 시인의 마음은 “마음의 신발 벗어들고” (6행), “마음의 마음도 벗어들고서” (11행) 임할 만큼 경건하고 엄숙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는 가톨릭적 의식이 철저히 반영된 시이다.

아래의 「새벽시간」은 시적 화자의 존재, 있음 즉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작품이다.

이 신령한 새벽을 덮은 건
 젖물 같은 안개지만
 이것도 오래 붙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발등조차 보이지 않는 지상 구름 그러나
 이것을 곧 벗겨내는 양양한 아침 햇살도
 오래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 짧아 간절한 새벽이여
 내 마음이라는 것이 머리카락 끝에 붙어
 사망천지 휘날리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임에도 내 마음으로
 한길로 모아지지 않는 사나운 들개지만
 그렇다. 그것도 오래 미쳐 나갈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여, 영원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독설이다
 내가 믿는 것은 짧아서 더 깊고
 차가워서 더 빛나는 이 새벽
 이 새벽의 긍휼한 시간 속으로 다가서는 일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
 뿐이다

- 「새벽 시간」전문-

위의 시에서 쓰인 새벽은 신달자가 즐겨 사용하는 시간이미지로서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산문 「새벽이라는 말」에서 새벽을 “어둠을 지나고 빛을 통과하는 어둠과 빛의 순례자”로 비유하면서 시인은 새벽이 “차디찬 자각의 세계에서 시작의 첫문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고 새벽의 언어는 진솔하고 말이 행동이 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벽은 “마굿간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시간이므로 그에게는 더욱 소중한 시간이다.²⁶⁾

제1연에서 시적 화자가 “신령한 새벽”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쓴 것도 신앙적 차원에서 나온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새벽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은 건강과 여유와 새 아침을

26) 그의 첫 시집 『봉헌문자』에서 새벽은 시작의 전개를 뜻하며 “사랑이/사랑이 아닌 것을/눈물과/눈물이 아닌 것을/절망과/절망이 아닌 것을 거느리고/새벽길을 걷는다”(「새벽 산책」 일부)에서 보듯이 사랑과 눈물과 절망을 거느리고 나서는 것이 곧 새벽 산책이다.

맞이하는 일상적인 의미 이상의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므로 새벽이라는 시간도 “너무 짧아 간절한 새벽” (7행)일 뿐이며, “영원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보다/더 독설” (14행-15행)일 수밖에 없다. 시적 화자의 인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내가 믿는 것은 짧아서 더 깊고/차가워서 이 빛나는 새벽/이 새벽의 공허한 시간 속으로 다가서는 일/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뿐이다.” 자아 성찰을 통해 얻은 결론은 “우리가 있다”는 것 즉 귀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존재의의에 대한 깨달음이다.

오세영의 시론²⁷⁾에 따르면 시가, 만일 인간 삶에 봉사하는 그 무엇이라면, 그것은 일상 생활에 기쁨을 주는 것 이외에도 다른 어떤 가치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삶의 방향—이념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시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부대껴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생명의 존귀함,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새벽이라는 공허한 시간 안에서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바, 한국의 여성시인들은 작품을 통하여 가톨릭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했을 때 얻게 되는 감동적 순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이것을 간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혼의 정화를 느끼게 하고 있다. 이들의 시는 잔잔하게 혹은 뜨겁게 인간의 영혼을 풀어내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진실과 투명한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시인의 자세에서 나온 결과이다.

김남조는 작품 속에서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강은교는 구원의 삶을, 이해인은 가톨릭 신앙 안에서의 求道者의 삶을, 신달자는 성모마리아

27) 오세영, 『말의 시선』, 혜진서관, 1988, pp. 62-63 참조.

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존귀함을 각각 시의 주제로 설정하여 가톨릭시즘을 수용하고 있다. 즉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경험에 속하는 신앙생활 특히 교회를 통한 종교생활은 교리에 비추어 자아성찰을 피하게 하고 이것을 문학이 반영하게 되어 있다고 할 때 이들 여성시인들은 시로써 가톨릭 신앙과 적극적인 조화를 이루어 가톨릭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시에서 대체로 드러나는 공통점은 시인 자신의 깊은 영적 내면을 더듬어가는 과정에서 신의 은총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감격을 시로써 표출한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시가 가톨릭 예술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세계 즉 “영원초월적인 실재 내용을 가시적 예술형식으로 표현”²⁸⁾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는 점이다.

본론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시에 종교적인 사상과 깊이를 담으려 할 때 흔히 관념시에 머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들은 자신의 독특한 표현기법이나 성지순례 혹은 실생활에서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 각기 터득한 감동을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여성시인들의 가톨릭의식은 개인적인 구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 가톨릭적 사상의 깊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시의 차원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 시인들의 시가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오늘날 물질문명의 과도한 발달과 산업화의 촉진, 대도시화의 추세로 인하여 자아와 세계, 인간과 자연이 연속되지 못하고 끊어져 있는 이 불연속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닌 문제를 사랑으로 풀고자 한 것도 여성 시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일 것이며 더구나 인간의 위기, 인간 정신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문학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 시인으로서의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과할

28) 최민순, 『영원의 길』, 가톨릭출판사, 1977.

수 없다.

주제어 : 가톨릭시즘(catholicism), 가톨릭시(catholic poem), 사랑세계(the world of love), 식물이미지(image of a plant), 구도의 길(the road of search after truth) , 시간이미지(image of time), 독자 위에 있는 시(poem over readers)

참고문헌

구 상, 「검허하고 투명한 심혼의 표백」,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분도출판사, 1987.

김승희, 「둥근 아니마의 일하는 사랑」, 시간의 얼굴(이해인시집4권), 분도출판사, 1989.

김용직 외, 『한국현대시연구』, 민음사, 1989.

김효중, 「시와 신앙」-김남조의 경우-, 『여성문제연구』 15집,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7.

———. 「이해인론」, 『여성문제연구』16집,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8.

———. 「한국현대시와 가톨릭시즘」-정지용을 중심으로-, 『가톨릭교육연구』8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98.

———. 「노천명의 시에 나타난 가톨릭시즘」, 『어문학』68, 한국어문학회, 1999.

———. 「구상 시에 나타난 가톨릭시즘」, 『국어국문학』124, 국어국문학회, 1999.

다께다 도모쥬, 이석현 역, 『문학과 인생』, 성바오르출판사, 1980.

박도식, 『순교자들의 신앙』, 성바오르 출판사, 1981.

- 박철희, 『서정과 인식』, 이우출판사, 1981.
- 오세영, 『말의 시선』, 혜진서관, 1988.
- 윤호병, 『문학의 파르마콘』, 국학자료원, 1998.
- 이인복, 『문학과 구원의 문제』, 숙대출판부, 1982..
- , 『죽음과 구원의 문학적 성찰』, 우진출판사, 1989.
- , 『성서의 여인들』, 우신사, 1989.
- , 『한국문학과 가톨릭시즘』, 우진출판사, 1990.
- 정한모, 「기독교 전교시대와 한국문학」, 『한국문학』2월호, 1976.
- 최민순, 『영원에의 길』, 가톨릭출판사, 1997.
- 한국가톨릭시선 편집위원회, 『한국가톨릭시선』, 들숨날숨, 2000.
- 딜리히P. Dilich, 김경수 역, 『문화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1.
- Eliot, T. S., *Notes towards the definition of culture*, Faber & Faber, London, 1962.
- Döblin, A., *Unser Dasein*, Walter Verlag, 1964.
- Sartre, J. P., *Was ist Literatur*, Rowohlt Verlag, 1963.

이 논문은 2004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5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4년 5월 28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